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이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 스승의 마음은 아버지시다 ♪”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되새기기 위한 날이다.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쇄학과 학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중부대학교 인쇄미디어학과 신종순 교수
**“실무교육과 언어능력
 향상에 중점”**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쇄미디어학과는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응용학문입니다. 응용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쇄 및 관련 학문의 기초 교육을 통해 응용능력을 배양시키고 선진해외 기술의 적응력 배양을 위해 해외 기술 잡지를 이용한 세미나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과정에서는 인쇄분야의 전반적인 이해와 개념을 함양 시킴으로써 응용능력을 배양시키고, 교육의 개방화 및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모스크바 화상출판대학(3+1학제)과 공동학위제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인의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산업분야의 요구에 맞추어 기본이론 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실험 실습교육 및 산학연계의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실용 개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쇄산업은 IT 및 화상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미디어 산업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본 전공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인쇄관련 업체(미래엔, 조폐공사, 신문사 등), 제지회사, 잉크, 기능성 재료(금속, 플라스틱, 컴퓨터 프린터 관련업체), IT 업체(이엘케이, 희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 인쇄출판사, 기획사, 광고회사 등의 다양한 회사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량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1998년부터 국립 모스크바 화상출판대학과 복수학위 취득 협정으로 100명 이상 러시아의 복수학위를 취득하여 국제인의 양성에 일찍부터 힘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산학특임 교수 및 겸임 교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언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떠했습니까?

2011년 신입생 지원 현황은 중부대학교 대부분의 학과가 높은 지원율을(5:1) 유지하였고, 본 학과는 6:1로 학교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원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취업, 홍보, 고교입학 지원학생의 증가되는 등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 학과의 높은 취업률의 영향으로 입학지원생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습니까?

졸업이 곧 취업이라고 할 만큼 매년 90%이상 취업률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본 대학에서는 취업률이 항상 1~2위를 유지합니다. 취업분야는 포장분야, 인쇄재료(제지, 잉크, 출판), 인쇄회사, IT분야 등 다양하지만 최근 1~2년 전 부터는 전자인쇄 분야에 50%이상 취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미래 사회는 다원적인 사고와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사회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성교육, 교육의 과학화 등 많은 학교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교육의 과학화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축소됨으로써 교양이 70학점, 전공이 60학점으로 축소됨으로써 전공분야의 수업이 부족하여 충분한 실습 및 이론이 부족한 상태로 졸업함으로 취업 후 자기 분야에 대한 전공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공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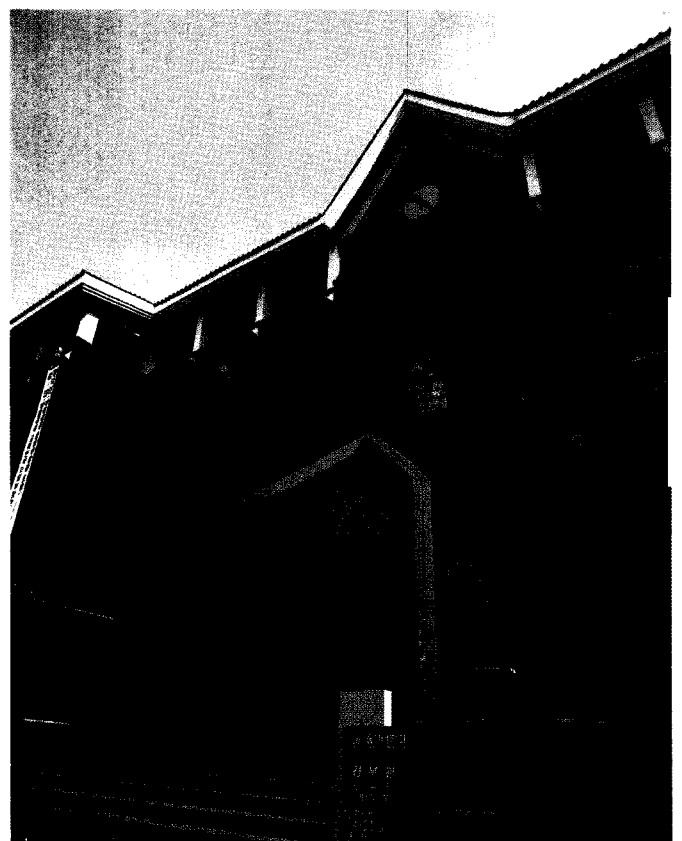
현재 산학협력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지만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인쇄 관련 업체와 산학 협력 관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동안 또는 4학년 1, 2학기동안 인턴쉽 제도를 도입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1998년에 처음 러시아에 학생들의 복수학위를 위해 한 학기동안 함께 지내는 동안 처음 외국 생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당시 과대표였던 이민희 학생이 학생들을 잘 리더하여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볼 때마다 의젓한 모습이 그 당시를 떠오르게 합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취미는 테니스로 주말에 교수들과 함께 즐깁니다.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 이상남 교수

“오랜전통으로 2000여명의 인쇄공학도 배출”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는 1978년에 설립된 국립 부산공업전문대학교 인쇄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4공화국 때 공업입국, 수출입국을 지향할 때, 유럽과 견공관이 ‘국산제품은 같은 품질의 물건이어도 포장이 나빠서 수출이 안된다.’ ‘포장기술이 좋아지려면 인쇄기술이 발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서울공업고등학교의 인쇄학과가 유일한 인쇄관련 교육기관이어서, 대학에 인쇄관련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하게 된 것이 부산공업전문대학교 인쇄공학과와 신구전문대학교 인쇄공학과(현재 신구대학 그래픽아트미디어과)였습니다. 부산공업전문대학교는 1984년에 4년제 국립 부산개방대학으로 승격되어 인쇄공학과는 국내 유일한 4년제 대학의 인쇄교육학과가 되었고, 1993년 국립 부산공업대학교로 교명을 개칭하였고, 1996년에 국립 부산수산대학교와 통합하여 국립 부경대학교로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4년제 대학의 인쇄교육학과로서는 1996년에 창설된 중부대학교 인쇄공학과(현재 인쇄미디어학과)와 더불어 두 개 학과 뿐이고,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과입니다.

33년동안 배출한 2000여명의 졸업생들이 현재 국내 인쇄산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크게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적으로 성숙된 인격을 갖도록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생활을 하는 기간중에 학업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여 생각하는 범위를 넓히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원동력을 가지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전공분야를 소개하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독려하여 우수기업의 취업기회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내용중 기본에 충실하되 응용하는 힘을 스스로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량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부경대학교는 1924년에 설립한 국립 부산공업대학교와 1941년에 설립한 국립 부산수산대학교가 1996년에 통합한 국립대학교로서 국내에서 학교의 전통이 가장 오랜 학교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산 분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보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분야 학교인 부산공업대학교는 86년간 수많은 공학도들을 배출하여 영남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공업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떠했습니까?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와 2011년 신입생 정시가군 모집은 35명 모집에 138명 지원하여 정시가군 지원경쟁률은 3.94:1 이고, 정시나군모집은 19명 모집에 161명 지원하여 정시나군 지원경쟁률은 8.47:1입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습니까?

부경대학교 인쇄정보공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은 2011년 2월 졸업생 81명 중 대학원진학 7명, 일반취업 40명으로 총4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60%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만을 통계화한 것으로 비정규직은 미취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첨단 인쇄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빠른 기간 안에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인쇄산업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학과에서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곳은 4곳입니다. 해군인쇄장(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주)씨앗(전라남도 광주시 소재), 한일종합인쇄(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주)첼링(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소재) 등이 그곳입니다. 앞으로는 인쇄와 전자인쇄분야 관련해 대기업 및 해외인쇄관련 업체, 연구소 등과 교류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수업을 받고 취업을 했습니다. 우선 5명만 언급하면, 박범석씨, 유미옥씨, 조국래씨, 김명숙씨, 김상국씨입니다.

박범석씨는 1회 졸업생으로 한국하이텔베르그 전무이사인데, 독일 유학 후 귀국하여 20여년간 인쇄기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쇄기계전문가입니다. 유미옥씨는 부산서구교육청 교육사로 졸업 후 인쇄교육관련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교육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국래씨와 김명숙씨는 삼성전자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국씨는 일본 (주)이데미츠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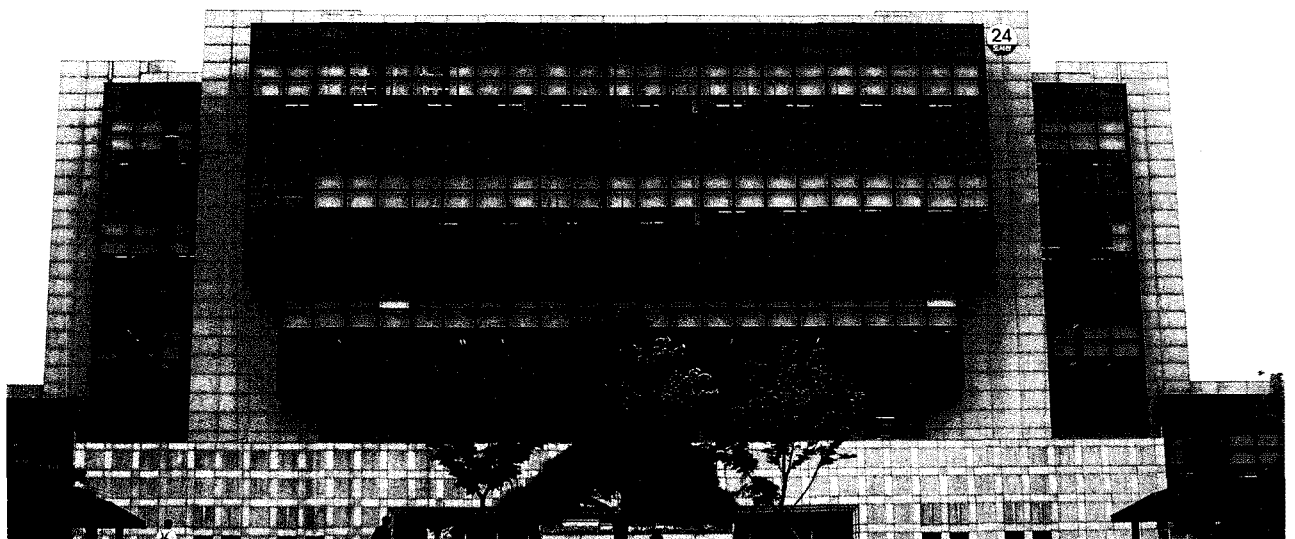
지도한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우수한 기업이나 대학교에 취직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몇가지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사 진촬영, 테니스, 등산, 명상 등입니다.

제자가 경영하는 인쇄 및 관련 업체 가운데 가장 알리고 픈(성공한) 기업을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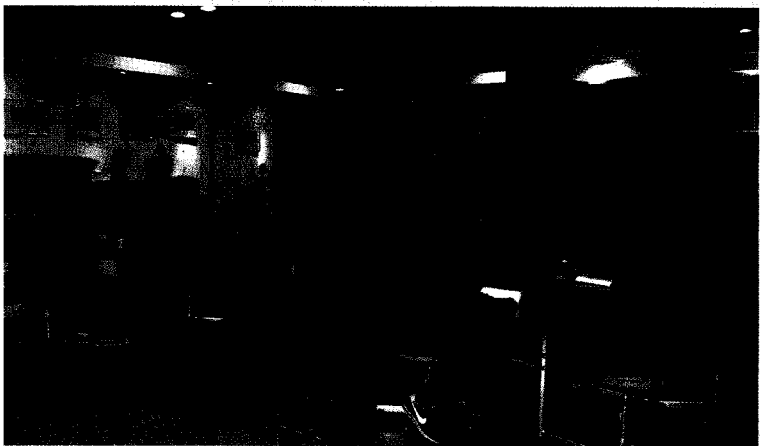
(주)대진그라텍의 양종헌 대표이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본 학과 졸업생으로 사업뿐만 아니라, 학과를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있으며, 본 학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도 취득한 열정적인 졸업생입니다.





신구대 그래픽아트미디어과 오성상 교수

“경력자, 2년만 공부하면 4년학사취득 가능”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개성이 다양화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과학과 예술이 접목이 되는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보유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가공하여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천년간의 위대한 발명품의 첫 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인쇄술은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인쇄술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가공하는 산업의 전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따라 그래픽아트(Graphic Arts)라고 하여, 수년 전부터 많은 투자와 함께 관련 기술자를 최고의 대우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분야(인쇄 및 디자인 기획, 그래픽 디자인, 편집 디자인, WTP, 스캔 및 출력, 디지털 데이터 가공, 다매체 응용), 프레스 분야(신문사, 상업인쇄, 디지털 프린팅, 영업 및 생산 관리, 후가공), 광고 인쇄 분야(옥내외 광고, 실사 및 플로터, 특수 이미지 재현, 특수 광고), 기타 분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주인공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이란 학생들의 호기심이나 탐구정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초이론에서 응용분야까지 폭넓은 교육과 학생들의 적성 및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랑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재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학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동문간의 화합과 유대를 증진하며 멘토링 활동, 취업캠프, 어학연수, 글로벌 챌린지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또한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가 관련분야 1년 이상 재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사 학위과정(전공심화)에 입학하여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양호했습니다. 교내 26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학생 보유율을 분석한 결과 그래픽아츠미디어과는 111.3%(2010년 4월, 2010년 10월 기준)으로 보유율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픽아츠미디어과의 졸업생들은 디자인/출판/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정합니다.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그래픽아츠미디어과의 취업률은 해마다 85%를 상회합니다. 진출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2006년 한국조폐공사 인쇄기술직 최종 합격자 5명중 2명이 그래픽아츠미디어과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픽아츠미디어과 졸업생들의 취업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디자인실(웅진씽크빅, 진학사, 베네세코리아, SJ비보이, 조형사, 양지사 등) 프리프레스 및 디지털프레스(CANON KOREA, HP, KODAK, FUJI, XEROX, KONICA, MINOLTA 등), 출판사(노벨과 개미, 동아서적, 푸른책들, 문학동네, 대동출판사),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경북매일신문 등), 정부투자기관(KT&G, 국가정보원, 국군인쇄창, 한국조폐공사 등), 교직(교수:Japan Printing Academy, 교사: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북공업고등학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등)특수인쇄, 자영업 등 많은 업체에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래픽아츠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전자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각종 정보매체를 이용한 정보의 활용으로 학과의 과정을 그래픽커뮤니케이션설루션분야, 프레스 및 디지털프레스 분야, 광고인쇄분야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창의적인 마인드와 함께 다양한 실무능력을 겸비한 그래픽아츠미디어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픽아츠미디어과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대학교 및 기업방문, 견학 등의 교류를 통하여 학과 재학생들에게 현장감과 전문지식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실용적 교육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89학번 김주정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만남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어려운 벽을 허물었고 그렇게 교수와 학생간의 소통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준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하면서도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인쇄화상전공에서 학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졸업하고 자기분야에 열심히 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데리고 와서 소개할 때는 흐뭇한 감정을 느낍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제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대학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친 시기는 한 5년정도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주일에 1~2번정도 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주 치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같이 치던 사람들과 시간만 맞으면 만나서 같이 치고 인생이야기도 하면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가지 운동을 10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회생활을 한다고 또는 동호인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않는것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열정보다는 앞서서 테니스활동유지에 원동력은 '재미' 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절대로 취미활동으로써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것이 즐겁고, 테니스가 즐겁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테니스를 오래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테니스는 겸손하게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에서 완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록이 있는 운동입니다. 안되는 날은 한없이 안되고, 잘되는 날은 한없이 잘되는 것이 테니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과 같이 말이죠

제자가 경영하는 인쇄 및 관련 업체기운데 가장 알리고 픈(성공한) 기업을 소개해주십시오.

전 질문에 답했던 바와 같이 김주정 제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컷팅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컷팅은 학교 졸업이후 삼화인쇄와 한국문원을 거쳐 현재는 한국컷팅이라는 광고회사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도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리텍3대학 남인천캠퍼스 디스플레이인쇄학과 이관학 교수 “국내유일의 클린룸에 각종 측정장비 보유”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인쇄학과는 디스플레이인쇄산업이 향후 10년간 유망산업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디스플레이인쇄학과에서는 첫째, 컴퓨터그래픽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디자인(QuarkXpress, 인디자인), 레이아웃설계(오토캐드)를 이용하여 각종 편집디자인 및 디스플레이인쇄 도면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인쇄기, 실사출력기, 고정밀인쇄기, 컬러관리시스템, 실험측정장비 등을 갖추고 출판광고인쇄, 고부가 가치 제품인 LCD, 아몰레드 핸드폰, 스마트폰 등 디스플레이 소재에 인쇄할 수 있는 전자인쇄기사를 양성하는 국내유일의 디스플레이인쇄학과입니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꼭 필요한 현장중심의 실무를 산학협력(MOU)을 통하여 기업체에서 요구한 현장 실무내용을 교과내용에 직접 반영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여 졸업

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량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시오.

2009년도에 국가 미래신성장동력으로 특성화하여 고부가 가치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신기술분야의 전자인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인쇄학과로 국내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클린룸 실습실이 설치되어 전자인쇄작업 및 인쇄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측정장비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어 실험실습의 표준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교수 소그룹제도인 멘토 멘티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별적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떠했습니까?

2011년도 디스플레이인쇄학과와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주간(60명) 정원에 약 3:1로 나타났으며, 학력별 입학자원 분포는 4년제 졸업생(5명), 2년제 졸업생(22명), 고등학교 졸업생(33명) 등 전문대졸 이상(약 45%)이 입학을 하였으며, 매년 고학력졸업 입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습니까?

2010년도 디스플레이인쇄학과 졸업생 중 군입대 및 대학진학을 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약 85% 이상 취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의 학생들 취업전망은 약 90% 이상 취업시킬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미래신성장동력분야인 디스플레이인쇄학과와의 2012년도 신입생 모집홍보를 위하여 브랜드파워를 강화시켜 양질의 교육인적자원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가 학교와 기업체간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산학공동연구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011년도 디스플레이인쇄학과와의 산학협력 교류는 신기술공동연구, 인력수급, 재직자 향상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2011년도 2월 졸업생인 장금옥(45세)씨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터민인 장금옥씨는 2009년부터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단순업무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기술에 대한 열망이 있던 차에 이웃에 사는 지인(새터민)의 추천으로 적지 않은 나이(45세)에 용기를 내어 한국폴리텍III대학 남인천캠퍼스 디스플레이인쇄과 스크린

인쇄직종에 입학하였습니다. 장 씨는 이론 및 실습교육과정을 성실한 자세로 자격증취득 준비와 기업맞춤훈련과 연계한 실무적용실습에도 열의를 갖고 생활한 결과 현장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실무인증자격증 취득, 인쇄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기업맞춤훈련과 연계한 기업체로부터 고령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흥시에 위치한 (주)SS뉴테크에 그 전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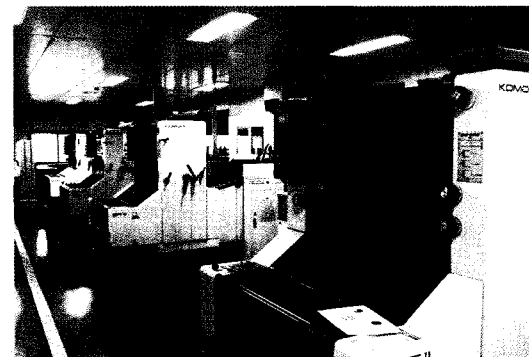
청년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위하여 디스플레이인쇄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성실히 기술을 잘 배우고 우수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업 후에도 기업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근무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스케치와 여행, 특히 바닷가 포구여행을 떠나 그리거나 사진에 담고 와서 편집하는 게 취미입니다.

제자가 경영하는 인쇄 및 관련 업체 가운데 가장 알리고픈(성공한) 기업을 소개해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에서 (주)파란교육을 운영하는 김영천(39세) 입시학원 원장을 간단히 소개하면, 2010년도에 디스플레이인쇄학과에 입학하여 편집디자인을 배워 학원장인 본인이 직접 광고디자인 및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해외연수, 우수신입생 모집에 큰 도움”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과 김래성 교사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공인된 인쇄 교육의 시작은 1955년 4월 1일 서울공업고등학교에 인쇄과가 신설되면서 부터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1993년 3월 인쇄사진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고, 2005년 인쇄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수정하여 학과명을 그래픽아트과(Graphic Arts)로 개명했습니다.

그래픽아트과는 사진·영상 매체, 컴퓨터그래픽·전자출판 매체, 평판·특수인쇄 매체를 접목시키는 화상공학으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기본 지식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학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기본 소양을 잘 갖추고 인성이 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창 시절에 기본 소양에 충실했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각, 결석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만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량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서울공업고등학교는 1899년 5월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 관립 상공학교로 설립되었으며 개교 112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실업교육의 발생지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60,000 명의 졸업생들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산학연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관 표창을 비롯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 금탑수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및 2010년 학교 경영 우수학교로 지정된 명문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공업고등학교는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 지역까지 인지도가 매우 높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고 2010년에 비해 여학생 지원자가 높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픽아트과는 15학과 중 매년 상위권(5~6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경쟁률은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6만 졸업생의 인적자원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그 위상을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졸업후 진로는 어떻습니까?

2010년 그래픽아트과의 취업률은 40%(13명)로 전년도에 비해 15% 상승했으며 서울 구로구 가산 및 독산동 지역의 오프셋 인쇄업체의 취업률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학생은 경기도 군포, 성남, 과주, 영등포 지역의 터치스크린 부품 조립 및 특수인쇄·가공 업체의 높은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쇄학과 동업계열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신구대학으로 35%(11명)가 진학을 했고, 숙명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경성대학교, 백석대학교, 대전대학교, 호원대학교 4년제 대학에 19%(6명), 나머지 2명은 수도권 전문대로 진학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확고한 신념이 없는 진학을 배제하고 취업률을 50%로 높일 생각입니다.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별로 변할 것 같지 않으니 실로 걱정입니다. 전공 교과서는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첨단 기자재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연간 소액 배당받는 실험·실습 기자재비는 낙후된 컴퓨터 몇 대 대체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것은 2008년도에 기존에 있던 그래픽아트과 실습장 건물을 헐고 현대화된 신축 건물을 세우면서 낡은 기자재를 일부 폐기하고, 사진-컴퓨터그래픽-전자출판실을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였는데, 앞으로 사진제판실과 평판인쇄실의 장비를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더불어 디지털 방식으로 보완시켜 네트워크화 시키는 작업이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쇄 산업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산학협력을 통해 지원 받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를 기증받아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바로 인쇄산업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2004년도부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일본 (주)미쓰비시인쇄사업부(2004년-2009년 6회 재학생 54

명)와 (주)고모리(2010년 1회 재학생 6명)가 후원한 '우수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인쇄관련학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협력 사업은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인쇄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볼 때, 인쇄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좋은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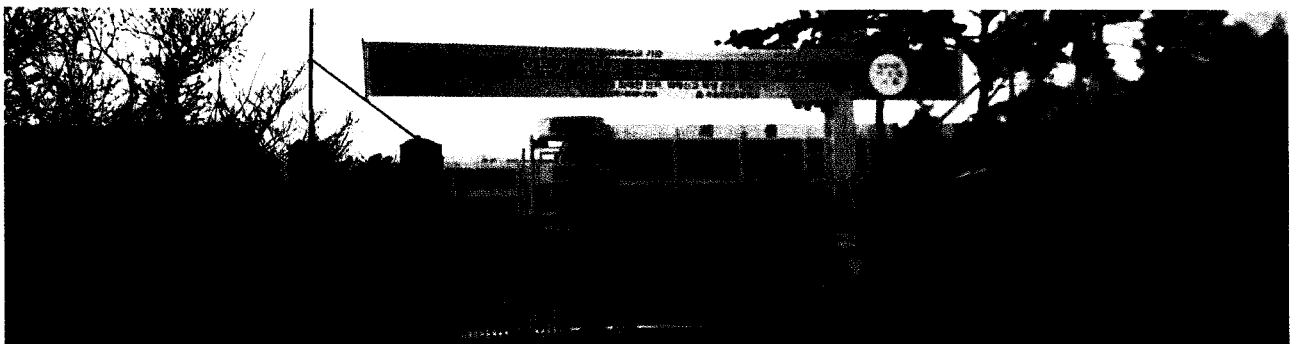
많은 제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그 중에서 서울공고 81회(1990년) 졸업생 중에 몇 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원 모집 공고가 났기에 수소문해서 주봉선, 김상헌이라는 제자에게 입사 시험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유독 주봉선이라는 제자가 서울을 떠날 수 없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더군요. 당시에 총무로 작은 제관 회사에 필름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가겠다고 버티더군요. 아주 끈질기게 설득시켜서 반 강제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입사시켰는데 원망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월급도 많지 않고 모든 여건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입사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IMF가 터지고 총무로 일대가 아주 큰 혼란을 겪었지요.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잘살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거지요. 요즘도 자주 연락이 오고 있는데 저를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예나 지금이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지요. 등록금 문제부터 급식비 심지어는 학교에 올 교통비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가정불화로 인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1984년 처음 서울공고 부임해서 12년, 2003년 다시 서울공고로 되돌아 와서 현재까지 9년. 21년 동안 인연을 맺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후배사랑 장학회'를 설립했고, 어려운 제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현실에 늘 감사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장학금 지급, 급식비 지원은 물론이고 가정 형편상 수학 여행비를 납부하지 못한 제자에게 학생 시절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도록 지원했고, 심한 척추 측만증으로 고생하던 제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원,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할 모습으로 졸업시킨 일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북공업고등학교의 영상그래픽인쇄과는 2011학년도부터 디자인출판과로 개명을 하여 디자인과 인쇄, 출판, 사진, 영상 관련 교과목을 학습하여 디자인계열과 인쇄, 출판, 사진분야로 취업,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디자인출판과'로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기존 디자인 교육과정 절반과 영상그래픽 인쇄과 교육과정 절반이 상호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학과는 디자인과 1개반, 영상그래픽인쇄과가 1개반이었으나 지금은 디자인출판과로 개명하여 2개 학급(64명)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주로 사진제판기능사, 컴퓨터그래픽응용기능사 시험, 전자출판기능사 시험 중에서 본인이 진학, 취업에 관련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의무검정(필기시험 면제 시험)으로 응시를 하고 있고, 매년 졸업예정자는 100% 1인 1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진학은 신구대학(그래픽아트과, 출판정보미디어과, 사진정보미디어과)과 연계 교육이 체결되어 있어서 매년 다수의 학생들이 지

원을 하여 입학하고 있으며, 중부대학교 인쇄관련과, 부경대학교 인쇄관련과, 동아방송대학 방송영상관련과, 인덕대학, 신흥대학, 서일대학, 서울예술대학 등등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의 전공이 인쇄입니다. 인쇄와 출판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이 인쇄분야나 사진분야, 출판분야, 디자인분야, 그래픽분야에 있어서 처음 접하는 학문이다 보니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인쇄관련 전문용어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의 예제, 실물, 사진, 영상을 보여 주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인쇄와 출판, 디자인, 사진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각디자인, 디지털사진, 컴퓨터그래픽, 출판편집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이 여러 분야 중에서 컴퓨터그래픽과 출판편집, 영상물 제작편집, 인쇄기계에 대해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량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영상과 그래픽, 디지털사진, 디자인, 출판, 인쇄를 가르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서울북공업고등학교 '디자인출판과' 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학과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판과 디자인, 인쇄가 접목된 기술인들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층무로나 을지로, 인쇄출판단지 등에서 종사하는 본교 출신자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북공업고등학교 디자인출판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70~90%의 내신성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5개 학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의 지역적인 특성상 전체적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전문계고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습니까?

2011학년도 졸업생들을 보면 30%정도가 취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65%는 2년제,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주로 취업을 색분해 출력소, 컴퓨터그래픽분야, 인쇄기계, 출판분야 등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진학은 신구대학(그래픽아트미디어과, 출판정보미디어과, 사진정보미디어과)과 연계 교육이 체결되어 있어서 매년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여 입학하고 있으며, 중부대학교 인쇄관련과, 부경대학교 인쇄관련과, 동아방송대학 방송영상관련과, 인덕대학, 신흥대학, 서일대학, 서울예술대학 등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2011학년도부터 디자인출판과로 통합되면서 인쇄분야와 디자인분야를 조화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출판에 필요한 영상편집 장비도 2인1조로 한 대씩 필요합니다. 컴퓨터그래픽 분야, 출판분야, 사진분야, 영상분야, 인쇄분야, 시각디자인분야에 꼭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재 신구대학과 연계교육이 체결되어 있어서 전공관련 학과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학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산

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인쇄관련 업체와 협의되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과 교류,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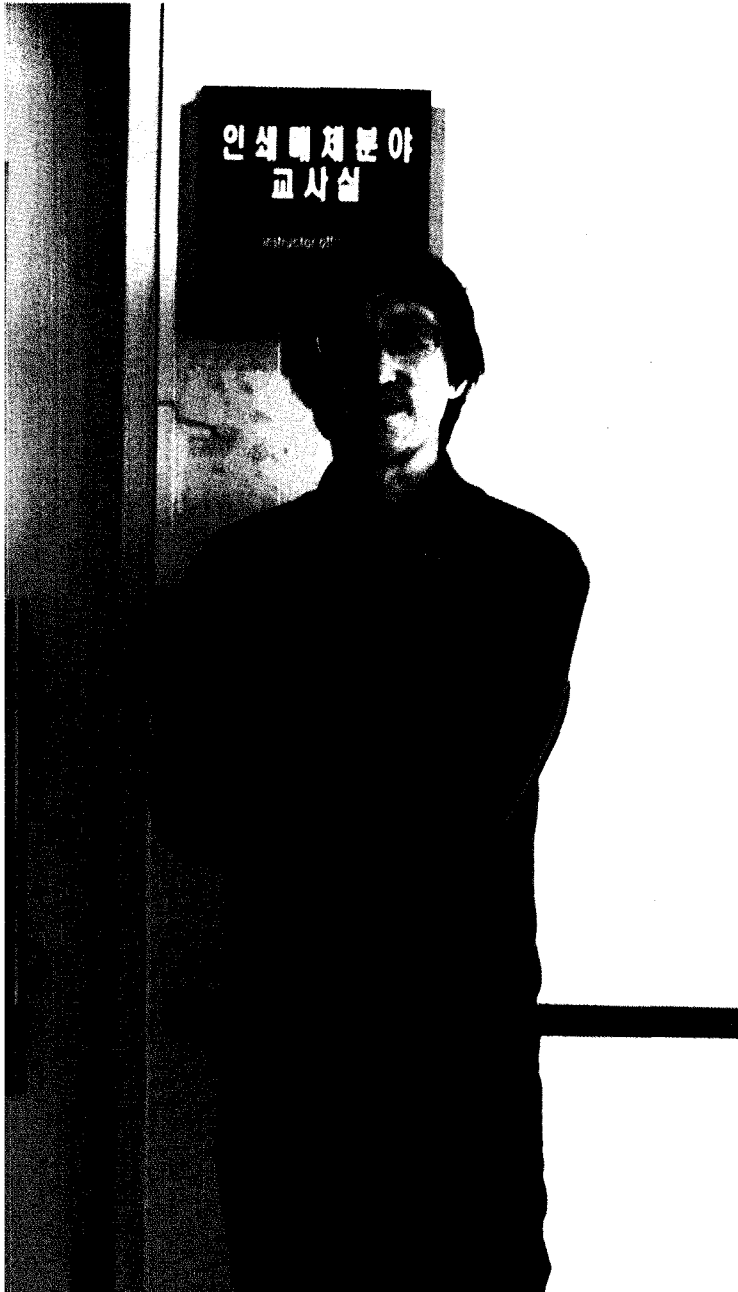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제가 교직에 처음 입문할 때 고3학생인 김정남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부경대학교 인쇄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하이텔베르그(주) 제품컨설턴트/매업인쇄기 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면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인쇄일반 교과서와 인쇄기계, 컴퓨터그래픽, 전자출판, 영상편집에 관련 분야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이 인쇄관련 용어를 복도에서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전문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볼 때, 취업 및 진학해서 학과 사무실에 찾아올 때 보람을 느낍니다.





“맞춤훈련 통해 인쇄사에 취업”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인쇄매체과
방종관 교사

해당 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인쇄매체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1991년 개교하였으며 인쇄매체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약 650여명을 배출하여 인쇄관련 회사에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교 당시 경 인쇄 과정을 시작으로 사진제판과정을 거쳐 현재는 편집디자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업 내용은 인쇄일반 이론과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한글편집, 인디자인, 쿼크익스프레스, 코렐드로우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파견훈련장을 신설하여 통학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편집디자인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대상자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데 위축될 수 있고 비장애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성훈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본인의 편집디자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만의 자랑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일산개발원은 맞춤훈련 제도를 통해 회사에서 요구할 때 언제든지 인력을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수시졸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입생 평가를 통해 신입생을 입학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학습능력에 따라 취업이 되면 수료시키는 제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과 동시에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훈련을 통해 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따라 학생모집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담당자가 직접 교육에도 참여하여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춤훈련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직무별 채용 계획이 있으면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사전에 회사 담당자가 면접을 하고 1차 합격한 사람에 대해 원하는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최종 평가를 거쳐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학교의 70% 이상 수료생이 맞춤훈련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매체분야에서는 현재 인쇄업계에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pc와 매킨토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장 적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 지원현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학교는 매월 평가하여 입학하는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정 원유지는 문제없습니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집디자인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쇄 관련 산업의 틈새시장으로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의 교정 업무를 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일러스트 삽화 작업, 앨범 제작에 필요한 사진편집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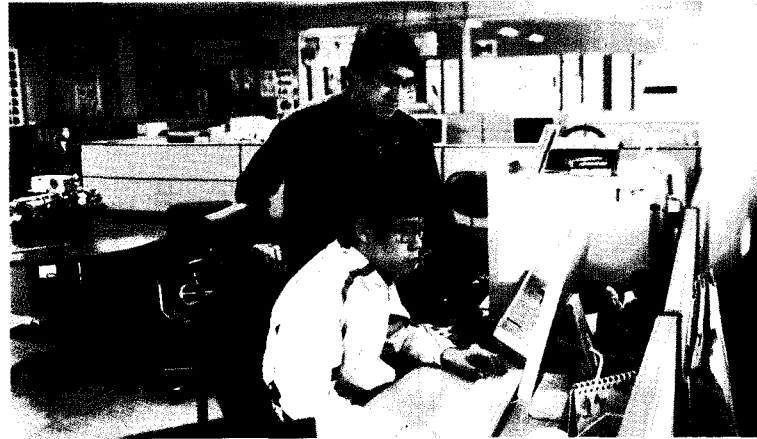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전자책(e-book)관련 디자인입니다. 아이패드 및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전자책제작 회사 및 전자책 관련협회 담당자들과 세미나를 열어 금년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5명 정도 시범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의 현황과 교류를 희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현재 많은 인쇄관련 업체와 맞춤형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편집디자인 및 단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10년 전 가르친 학생인데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 하던 중 교통사고로 왼쪽 팔을 다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운동도 좋아하던 학생인데 한 손으로 타이핑 연습을 하여 300타/분 이상을 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땀고, 현재 의정부에 있는 인쇄회사에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때와 19년 전에 가르친 학생들이 안부인사와 메일을 보내거나 주말에 찾아올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취미는 무엇입니까?

몇 해 전만해도 축구를 가장 좋아하고 즐겼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등산, 사진촬영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경영하는 인쇄 및 관련 업체 가운데 가장 알리고픈(성공한) 기업을 소개해주세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수료생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업한 수료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정부 3동에 있는 유��플러스란 회사입니다. 장애인 3명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편집디자인과 사진앨범제작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은 뒤 편집, 출력을 통해 앨범 제작을 해 주는 곳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추천합니다. ☺

글_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사진_ 안세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